

주요 내용

1. [2021년 자살 실태]

코로나19 이후 전 연령 중에서 10대 자살률 증가 가장 높아!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1)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실태

2) 2022 한국인의 통일의식조사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연령 중에서 10대 자살률 증가 가장 높아!

해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통계청의 전년도 사망원인통계가 발표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주에 사망원인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자살통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잘사는 국가들만 모아놓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17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젊은 층의 사망원인 1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살'이 차지했다. 국가의 미래세대가 자살로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연령대 중 10대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가 가장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살은 사회적이면서 종교적이고 또 개인적인 요인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어느 하나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현상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넘버즈>에서 '자살'에 대해 다루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넘버즈 162호>는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이후 자살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자살의 통계적 실상을 살펴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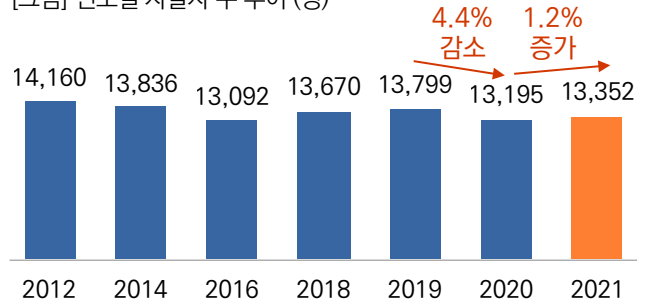
2021년 자살자 총 13,352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증가!

- ▶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우리나라 총 자살자 수는 13,352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증가(1.2%)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는 하루 기준으로 36.6명이며, 시간당 1.5명꼴이다.
-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자살자 수가 2019년 대비 4.4% 감소했으나, 2021년에 다시 증가하는(+1.2%) 현상을 보였다.

[그림] 2021년 자살자 통계

1년 총 자살자 수	13,352명
하루 자살자 수	36.6명
시간당 자살자 수	1.5명

[그림] 연도별 자살자 수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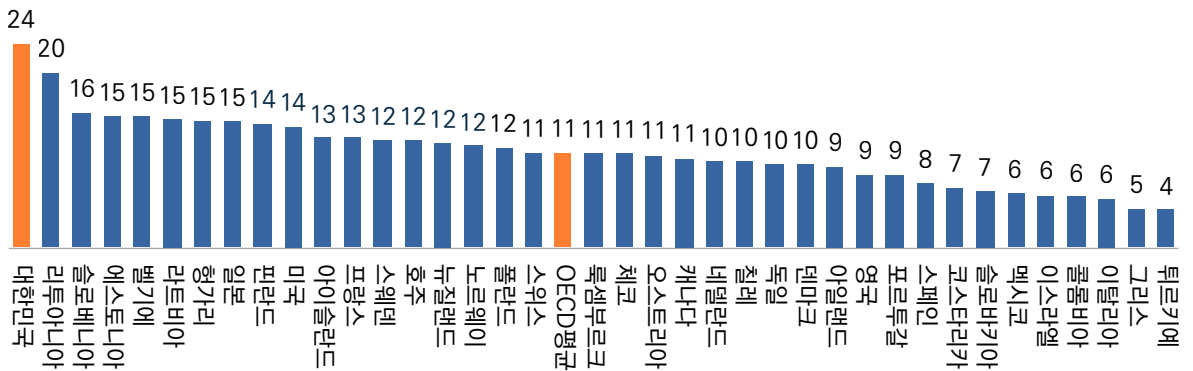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2.09.27.

◎ 한국의 자살률, 여전히 OECD 중 압도적 1위!

- ▶ OECD 국가 중에는 최근 편입된 리투아니아와 비슷한 자살률을 보였는데, 지난해 기준 리투아니아가 약간 떨어지고 한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 OECD 평균 자살률이 11.1명(인구 10만 명당)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그림]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비교 (2021년 기준)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2.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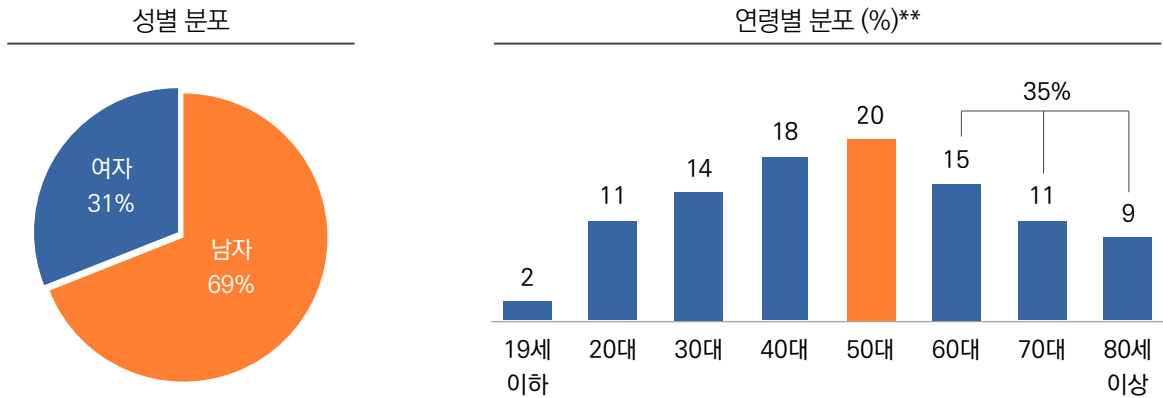
note1) OECD, STAT, Health Status Data(2022. 9. 추출), 우리나라 최근 자료는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수치임
 note2)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02

자살자,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아!

- ▶ 자살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69%, 여자 31%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다.
- ▶ 자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20%로 가장 많으며, 전체 자살자의 3명 중 1명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그림] 자살자 성/연령 분포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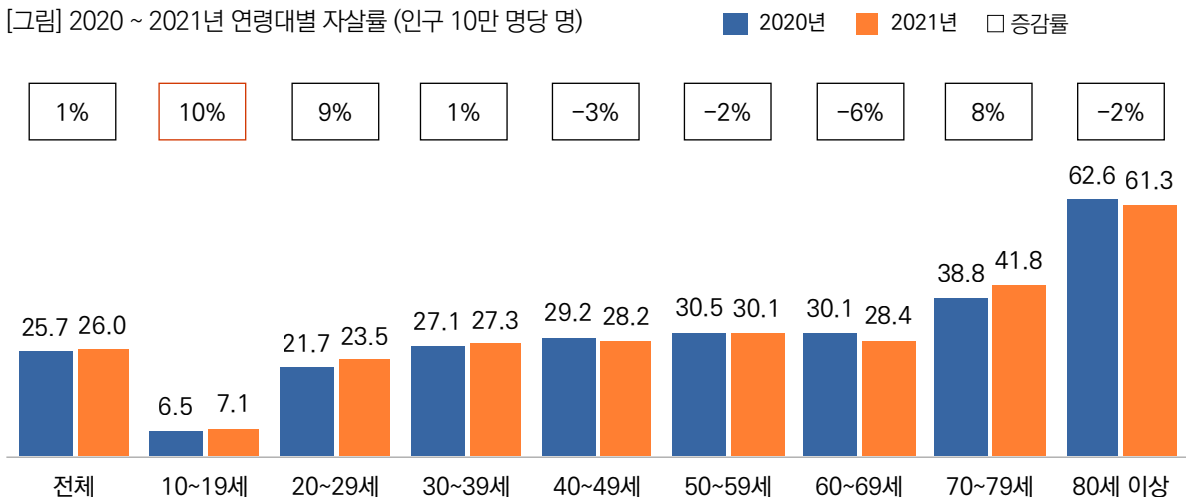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2.09.27.

**자료 출처 : 통계청의 '2021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서 연령별 분포 자료가 없어 부득이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2 자살예방백서'(2022.06.15.)의 2020년 자살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음

◎ 전 연령대 중에서 '10대 청소년' 자살률 증가 가장 높아

- ▶ 2020년 대비 2021년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진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40대 이후 중장년 또는 노년층의 자살률은 감소하는 반면, 10~20대의 자살률이 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10%나 증가하였다.

[그림] 2020 ~ 2021년 연령대별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2.09.27.

◎ 10~30대 사망원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살'이 1위

- ▶ 한국인의 사망원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1위는 '암'이고, '자살'은 5위인데 이러한 현상은 매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일률적이지 않은데 가장 특이한 점은 30대 이하 젊은 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이다.
- ▶ 특히 20대 연령층의 경우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자살이 사망원인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 이번에 발표된 2021년 결과 중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50대 연령층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작년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는 점인데, 앞에서 살펴본 자살자 중 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표] 연령별 사망원인 중 '자살' 순위 및 비중 (2021, %)

순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자살(44%)	자살(57%)	자살(41%)	암(28%)	암(35%)	암(41%)
2위				자살(21%)	자살(10%)	
3위						
4위						자살(4%)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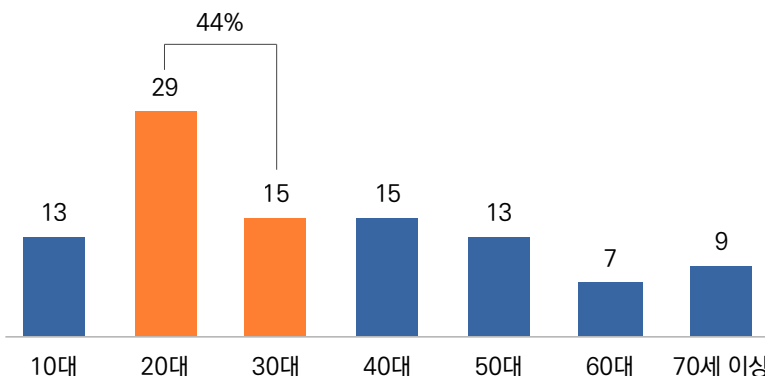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2.09.27.

03

20대 청년, 자살자 비율은 11%이나 자살시도는 29%!

- ▶ 자살을 시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자살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는 현황(2020년 기준)을 살펴보았다. 전체 연령 중 20대 연령층이 29%로 가장 많았는데, 자살자 중 20대 비율이 11%인 점을 감안하면 20대 층이 실제 얼마나 많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 2030 전체로 보면 자살자 비율은 25%이나 자살시도자는 4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연령대별 자살 시도 실패, 응급실 내원 현황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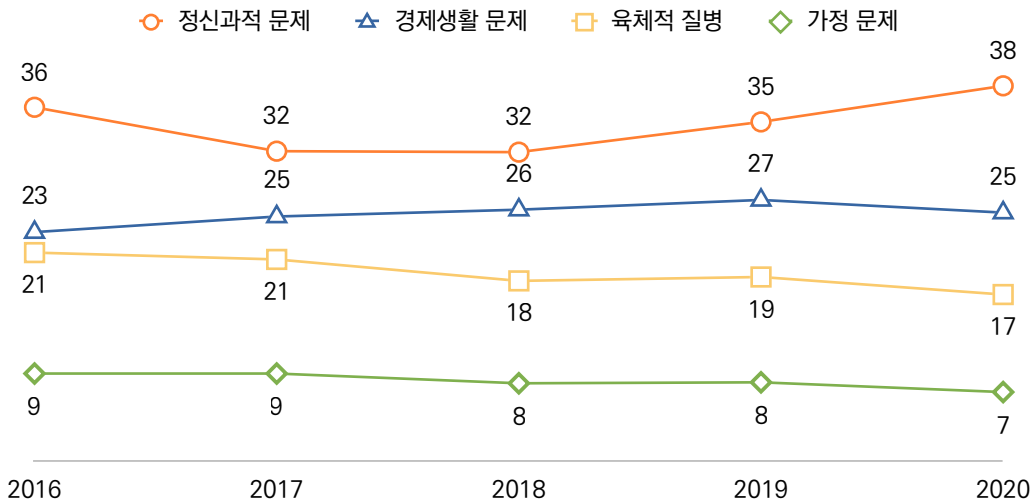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자살예방백서, 2022.06.15. (중앙응급의료센터, 2020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 (NEDIS)자료 N20220200111)

04

자살 동기, 정신과적 문제 점점 증가세!

- ▶ 자살 원인(동기)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의 2016~2020년 변사자료 자살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자살 동기로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등의 순이었다.
- ▶ 최근 5년간 자살 동기를 추적해 보면, '정신과적 문제'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자살 동기 추이 (2016~2020년, 상위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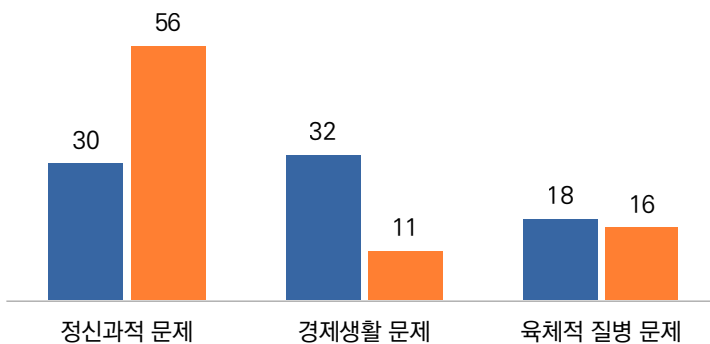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자살예방백서, 2022.06.15. (2016~2020 변사자 통계, 경찰청)

◎ 남자는 '경제생활 문제', 여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 원인 1위!

- ▶ 남녀별로 자살 동기에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는 '경제생활 문제(32%)'와 '정신적 문제(30%)', 여자는 '정신과적 문제(56%)'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자살 동기 (2020년 기준, 상위 3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자살예방백서, 2022.06.15 (2016~2020 변사자 통계, 경찰청)

◎ 10대 청소년 자살 동기, '가정문제'가 2위!

- ▶ 연령대별 자살 동기를 살펴보면 30대까지는 '정신과적 문제', 4050은 '경제생활 문제',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가정 문제'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띈다. 가정 문제가 학업 요인, 부모 관계 요인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가정'이란 테두리가 10대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표] 연령대에 따른 자살 동기 (2020년, 상위 3위)**

구분	1위	2위	3위
10대	정신과적 문제 (58%)	가정 문제 (12%)	남녀 문제 (5%)
20대	정신과적 문제 (52%)	경제생활 문제 (19%)	남녀 문제 (8%)
30대	정신과적 문제 (38%)	경제생활 문제 (36%)	가정 문제 (7%)
40대	경제생활 문제 (39%)	정신과적 문제 (35%)	가정 문제 (8%)
50대	경제생활 문제 (36%)	정신과적 문제 (34%)	육체적 질병 문제 (12%)
60세 이상	육체적 질병 문제 (40%)	정신과적 문제 (37%)	경제생활 문제 (11%)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자살예방백서, 2022.0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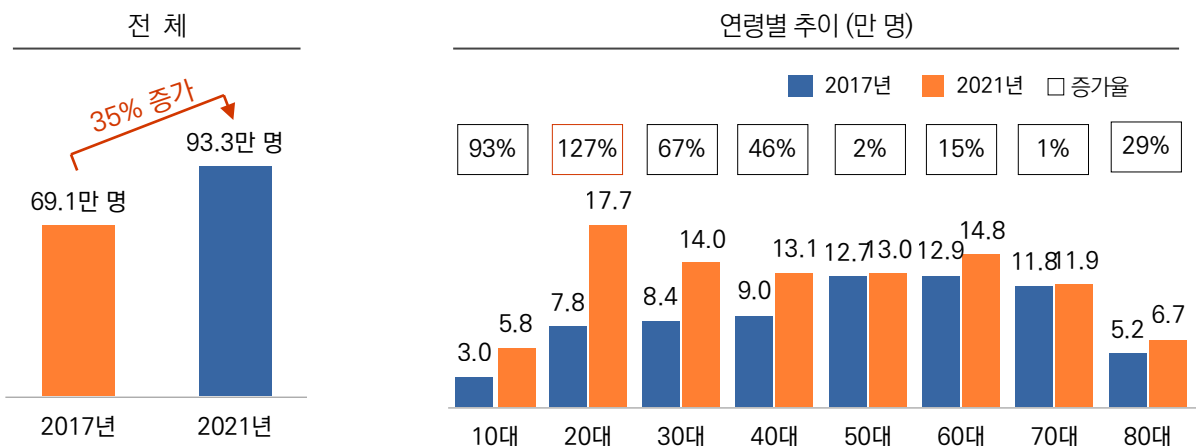
**기타 응답은 순위에서 제외

05

20대 우울증 환자 수, 5년 사이(2017년→2021년) 127% 급증!

-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살에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요인이 정신과적 문제이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질환이 우울증인데, 우울증 환자 통계를 알아보았다.
-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무려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40대 이하층에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 전 연령대 중 20대 젊은층에서 우울증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 지난 5년간 무려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 10대 청소년 및 20~30대 청년의 우울증 환자 수 증가한다는 것은 '우울증이 자살 위험을 최고 66배까지 높인다'는 여러 연구가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그림] 우울증 환자 증가율 (2017 vs 2021년, 만 명, %)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보도자료, 2022.06.24.

**자료 출처 : 시사저널, '우울증은 자살 위험을 66배까지 높인다'(1719호) 기사 참조, 2022.09.2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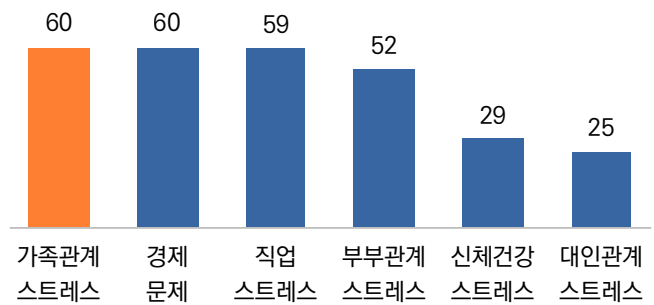
자살 사망자, 자살 직전 '가족관계, 경제 문제, 직업 문제' 스트레스 겪어!

- ▶ 자살자를 사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부검이란 방법을 사용하는데, 심리부검이란 자살자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을 말한다.
- ▶ 심리부검 면담조사를 통해 자살 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 전까지 경험했던 스트레스 개수를 분석한 결과, 1명당 평균 3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8개 스트레스 사건** 각각에 대해 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요 스트레스 사건은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 스트레스'(60%)와 '경제 문제'(60%), 동료 관계·실직 등 '직업 스트레스'(59%)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사망 전 스트레스 사건 경험 (2015~2021년)

자살 사망자 1명당
평균 **'3개의 스트레스 사건'**
동시에 경험

[그림] 주요 스트레스 사건 경험률 (2015~2021년)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15~2021년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7.20

**'8개 스트레스 사건'의 영역은 ①직업 스트레스, ②경제 문제, ③가족관계 스트레스, ④부부관계 스트레스, ⑤대인관계 스트레스, ⑥연애관계 스트레스, ⑦신체건강 스트레스, ⑧기타 스트레스이다.

◎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89%), '정신과 질환 진단 받았거나, 질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 심리부검 면담 조사 결과, 자살사망자 대다수(89%)는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신질환 세부 유형을 보면 '우울장애' 비율이 82%로 가장 높았고,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33%, '불안장애' 2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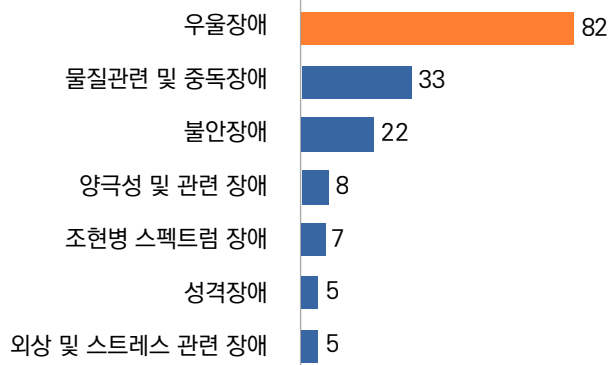
[그림] 자살 사망자의 정신건강 (2015~2021년, %)

정신과 질환 여부

추정 정신과 질환을 진단 받았거나
질환이 있을 것이라 추정

89%

추정 정신과 질환 항목 (중복응답, 상위 7개, 2015~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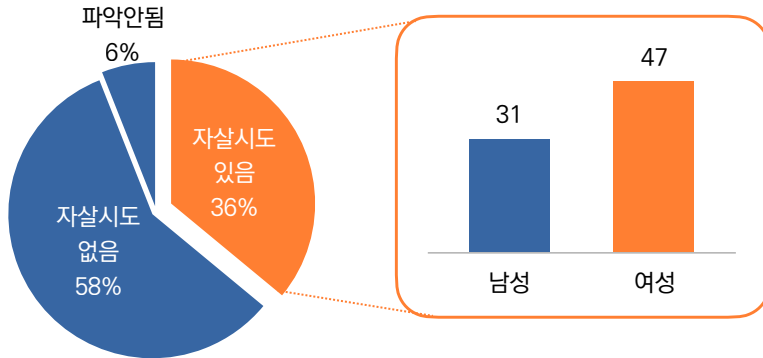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15~2021년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7.20

◎ 자살자 3명 중 1명 이상(38%), 과거에 자살 시도 했었다!

- ▶ 심리부검 면담조사 결과, 자살자 3명 중 1명(36%)이상은 '사망 전 자살시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자살자 중 31%, 여성 자살자 중 47%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자살 시도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자살시도 (2015~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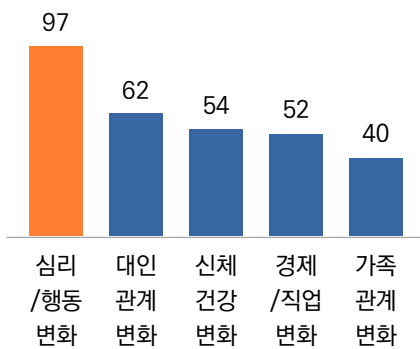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15~2021년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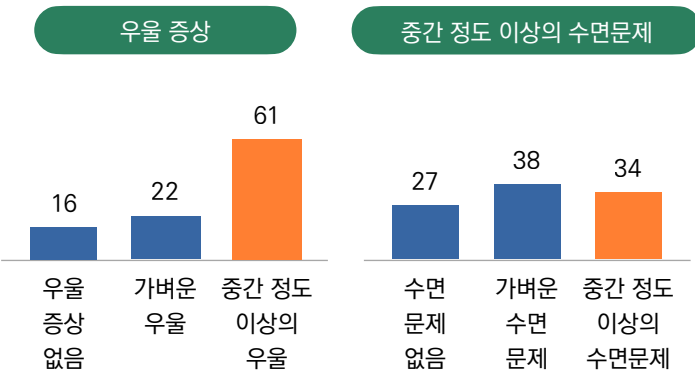
◎ 자살 유가족, 대부분(97%) 우울 증상 등 심리/행동 변화 경험!

- ▶ 자살 유가족의 대부분(97%)은 심리/행동상에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10명 중 6명(61%)은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을 보였고, 3명 중 1명(34%)은 중간 정도 이상의 '수면문제'로 고통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자살자 유가족 사별 후 변화 (중복응답, 2015~2021년, %)



[그림] 자살 유가족의 정신건강 문제 (2015~2021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15~2021년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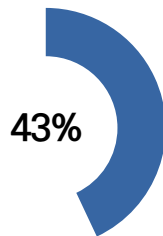
**각각 5점 척도(우울)와 4점 척도 질문(수면문제)으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중간 정도+다소 심각+심각)'이고, '중간 정도 이상의 수면문제(중간 정도+심각)' 비율임

◎ 자살자 중 자살자 유족이 43% 차지!

- ▶ 자살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의 43%는 '자살로 가족 또는 친구·지인을 잃은 자살 유족'인 것으로 나타나, 자살자 유족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 자살자 유족 10명 중 6명(60%)은 면담 당시 자살 생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자살자 유가족의 자살 위험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 현재 한국은 가족이 아닌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심리지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치료비나 경제환경지원금은 동거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자살 유족을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자살자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자살 생존자'로 명명해서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지원한다. 우리 사회도 '자살 유족'에 대한 범위 확장을 논의하여 지금보다 촘촘하게 관리 및 지원망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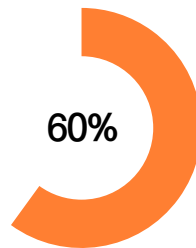
[그림] 자살 사망자 유형 (2015~2021년)

자살로 가족 또는 친구·지인을
잃은 자살 유족



[그림] 자살자 유족 면담시 (2015~2021년)

면담 당시
자살 생각이 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15~2021년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7.20.

**자료 출처: 뉴시스, '극단선택' 가족·친구까지 전염...약순환 고리 끊으려면? 기사 참조, 2022.07.1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719_0001948685)

최근 한 신문 기사가 눈을 끌었다. '8월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17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입주민 A(19·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당일 오전 아파트 고층으로 향한 정황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A씨는 '최근 친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만 18세까지 지역 보육시설에서 생활했으며, 부모는 모두 장애가 있어 A씨를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엔 광주의 한 대학 건물에선 이 학교 신입생 B군이 극단선택을 했다. 보육원 출신인 B군은 시설을 나올 때 받은 지원금 700만원 가운데 500여만 원을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보육원 관계자에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며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com>, '보육원 출신 잇단 비극', 2022. 8. 25)

이 기사는 안타깝고 슬픈 자살 사건인데, 이 사건이 보육원 출신 청년이라는 한정된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안된다. 비록 자살자는 시설 보호 종료 청년이지만 이 사건은 청년 자살의 핵심을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에게 냉혹한 현실의 벽, 외로움과 우울증, 동반 자살 등등.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10~20대 '청춘'들의 자살이다. '청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밝음, 명랑함, 활기참, 푸르름, 싱그러움 등등. 긍정과 희망의 아이콘이 청춘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긍정과 희망의 이미지는 청춘에게 덧씌워진 상투적인 이미지일 뿐이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축 처지고, 피곤하며, 주눅 든 모습, 우울함, 무기력함, 회색 잿빛 또한 이 시대 청춘들의 이미지이다. 즉 자살은 청년들과 어울리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현실은 자살이 이들과 밀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오늘 「넘버즈」가 잘 드러내었다. 10~20대의 사망 동기 1위가 자살(10대 44%, 20대 57%)이며, 자살률 증가도 10대~20대가 가장 높으며(10대 10%, 20대 9%), 자살 시도 실패

한 사람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29%로 30대와 40대의 15%보다 무려 2배나 높을 정도로 자살 시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가 청년 자살을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 왜 청년 자살이 증가할까?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겪는 정신과적 질환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는 자살이 정신과적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실제 자살 동기 가운데 정신과적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다. 또 대표적인 정신과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을 20대 가운데 17.7만 명이 앓고 있고 우울증 증가율도 전 연령대에서 제일 높다는 사실은 왜 20대 자살이 늘어나는지 잘 설명해 준다.

우리가 흔히 우울증은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걸린다고 생각하여 우울증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대인의 우울증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 개인에게 집약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육체적 질병, 경제적 고통, 아픈 가족 관계, 상처받은 인간 관계 등등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무력함을 느낄 때, 도와줄 이 없는 현실에서 고립무원의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은 자살 유혹을 받기 쉽다. 막다른 길로 몰린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다.

교회는 이런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야 한다. 최근 기독교전문 여론조사회사인 지앤컴리서치에서 전국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상적 교회에 서라면 어떤 감정을 받고 싶는지 질문했을 때, 존중감과 위로감, 사랑받는 느낌, 배려받는 느낌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 교회에 오면 '가치없고 무기력한'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위로가 될 수 있다. 무기력하고 외로운 이들이 쉼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와 힘을 길러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는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다.

1.[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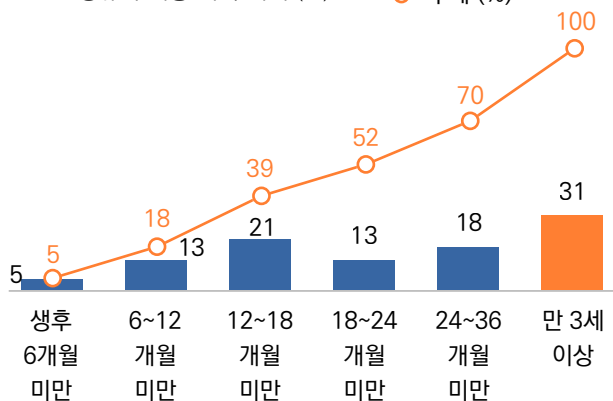
2.[2022 한국인의 통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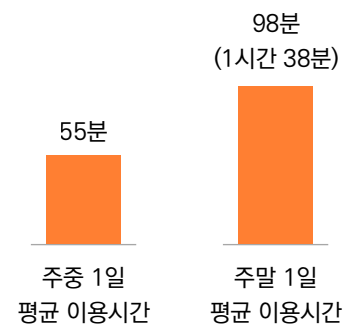
영유아 70%, ‘세 돌 전에 스마트폰 이용 시작’!

- ▶ 최근 발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 시작 시기’로 ‘만 3세 이상(31%)’이 가장 많았는데, 세 돌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영유아가 전체 10명 중 7명(70%) 꼴로 나타났다.
- ▶ 영유아 자녀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PC 평균 이용 시간은 평일 55분, 주말 1시간 38분으로 주말이 평일보다 1.8배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스마트폰·태블릿PC 영유아 이용 시작 시기 (%)



[그림] 스마트폰·태블릿PC 영유아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분)



*자료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이슈페이퍼,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2022.08.24.(전국 0~6세 영유아의 부모 15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2021.08)

◎ 영유아 부모 74%,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보여준다’!

- ▶ 보호자가 영유아에게 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가 74%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서’도 70%로 높았다. 이는 부모들의 시간 확보와 편의를 위해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은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67%)하거나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용하게 하는’(41%) 등 대체로 ‘보호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하는 비율도 10명 중 1명(11%)으로 비교적 높았다.

[그림] 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복수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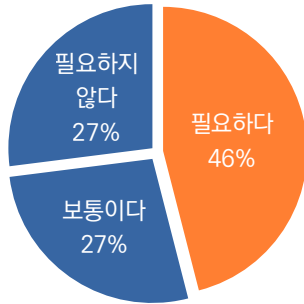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이슈페이퍼,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2022.08.24.(전국 0~6세 영유아의 부모 15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202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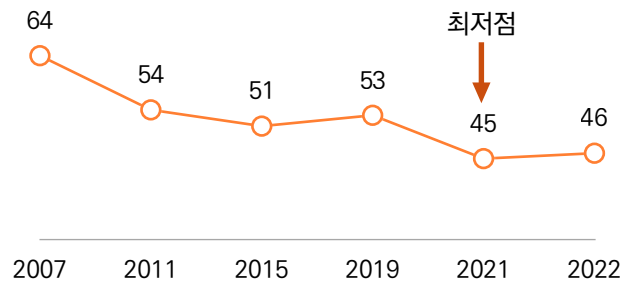
‘통일이 필요하다’, 첫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낮아(46%)!

-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2 통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46%)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4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그림] 통일의 필요성



[그림] 통일의 필요성 인식 추이 (‘필요하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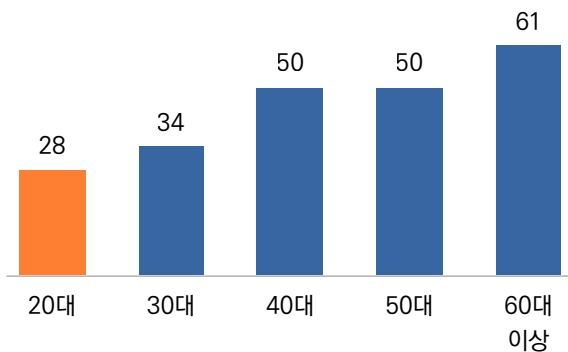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한국인의 통일인식’ 자료집, 2022.09.27.(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 대상, 면접조사, 2022.07.01.~07.25)

**5점 척도 질문으로 ‘필요하다(매우+약간)’ 비율임

◎ ‘통일이 필요하다’, 20대 28%!

-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28%로 전 연령층 중 가장 저조했는데, 40대 이상과는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통일의 필요성 (연령별 ‘필요하다’ 응답률, %)**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한국인의 통일인식’ 자료집, 2022.09.27.(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 대상, 면접조사, 2022.07.01.~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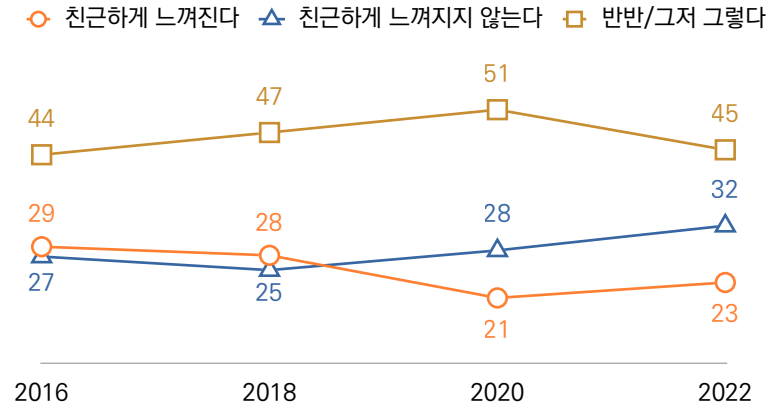
**5점 척도 질문으로 ‘필요하다(매우+약간)’ 비율임

◎ 탈북민에 대한 인식,

‘탈북민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3명 중 1명(32%)으로 역대 가장 높아

-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은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32%로 나타나 역대 조사(2007년부터) 중 가장 높았다.
- ▶ 통일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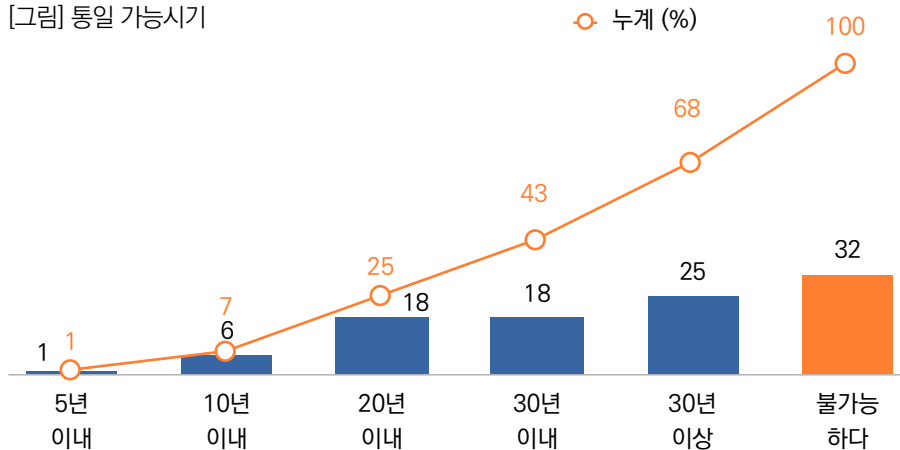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한국인의 통일인식' 자료집, 2022.09.27.(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 대상,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2022.07.01.-07.25)

**5점 척도로 친근하게 느껴진다(매우+다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전혀+별로) 비율임

◎ 통일 가능 시기, 국민의 절반 이상은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 예상!

- ▶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국민들의 7%만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년 이상’ 25%, ‘불가능’ 32%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세대에는 통일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통일 가능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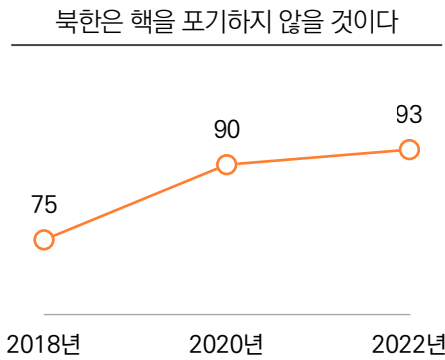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한국인의 통일인식' 자료집, 2022.09.27.(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 대상,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2022.07.01.-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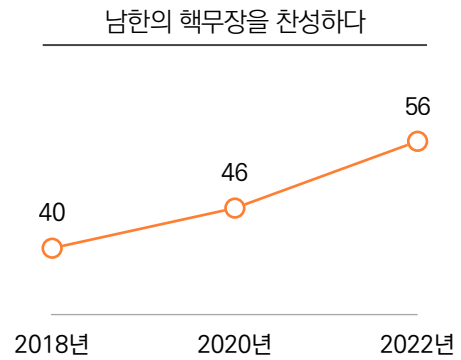
◎ 국민 대다수(93%), “북한, 핵 포기하지 않을 것”... ‘남한 핵무장’ 절반 이상(56%) 찬성!

- ▶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대다수(93%)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 ▶ 반면,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에 대해서는 올해 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한의 핵무장 인식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 인식이 낮아지는 것과 반비례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



[그림] 남한 핵무장 관련 의견**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한국인의 통일인식' 자료집, 2022.09.27.(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 대상,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2022.07.01.-07.25)

**각각 4점 척도 핵포기 하지 않을 것 (매우+다소 동의) 와 5점 척도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함(매우+다소 찬성) 비율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13호\(2022년 9월 5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영국·북미 순방, 한일 관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등

◎ 사회 일반

[초고령사회 '초고속' 진입... '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

YTN사이언스_2022.09.30.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 절반 이상 "더 일하고 싶다"](#)

연합뉴스_2022.09.29.

[한국 노인 사회적 관계망, '동년배 지인' 중심으로 재편 중](#)

연합뉴스_2022.10.02.

[죽음조차 외로웠다... 5060 고독사, 남자가 여자보다 10배 많다](#)

조선일보_2022.10.03.

[1인 가구의 42%, 부업 뛰는 'N잡러'... 소비 ↓·저축 ↑ 추세](#)

연합뉴스_2022.10.03.

["메타버스서도 성적 콘텐츠·혐오·괴롭힘 등 우선 제한해야"](#)

연합뉴스_2022.09.27.

[인문녀·인문남·교육녀 중 가장 취업 힘든 건? 씁쓸한 통계 나왔다](#)

중앙일보_2022.10.02.

['하루 23건씩' 연일 마약에 찌드는 한국... 이 도시는 예외](#)

이데일리_2022.09.29.

[교사에게 톱 던지고 교탁 아래 도둑촬영... 심각한 교권침해](#)

연합뉴스_2022.09.29.

[초등교원 '여초' 현상 심화... "의무 할당 필요" vs "여성 역차별"](#)

세계일보_2022.10.03.

◎ 트렌드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2.09.28.

◎ 청소년 / MZ세대

[청년들 평균 빚만 1300만원... 매일 야근해도 '팅장'인 이유](#)

중앙일보_2022.09.30.

[작년 소년 성범죄·폭행 급증... 가정폭력도 증가해](#)

문화일보_2022.10.0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국제

[한국,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종차별 심한 나라” 불명예](#)
조선비즈_2022.09.30.

◎ 기독교 / 종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미국인 5명 중 1명 뿐…](#)
더미션(국민일보)_2022.09.30.

[6개 주요 교단, 10년 연속 교세 감소…정점 대비 202만 명 줄어](#)
뉴스엔조이_2022.09.28.

[교인 매일 747명꼴 줄어드는데… 목사는 3명 늘었다](#)
더미션(국민일보)_2022.09.29.

◎ 기획기사1 : 한국경제 위기인가, (연합뉴스)

1. [고개드는 경제위기설…원인과 실상은](#) _2022.10.02.
2. [금융시장은 이미 위기국면 진입](#) _2022.10.02.
3. [美연준이 최대 뇌관…가계빚·부동산도 위태](#) _2022.10.02.
4. [고환율·고물가·무역적자…곳곳서 위기 경고음](#) _2022.10.02.
5. [퍼펙트스톰 온다…대기업들 전시체제](#) _2022.10.02.
6. [생존 걱정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_2022.10.02.
7. ['킹달러'·전쟁…외부 위험요인도 '침침산중'](#) _2022.10.02.
8. [전문가들 "1997·2008년과 달라…금리 중요"\(끝\)](#) _2022.10.02.

◎ 기획기사2 :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빛, (한겨레)

1. [2022 청년부채 보고서](#) _2022.09.13.
2. [연체의 늪에 빠진 이유](#) _2022.09.14.
3. [청년 빛의 다양한 얼굴](#) _2022.09.19.
4. [대출이 제일 쉬웠어요](#) _2022.09.21.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운, 박세웅,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오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할,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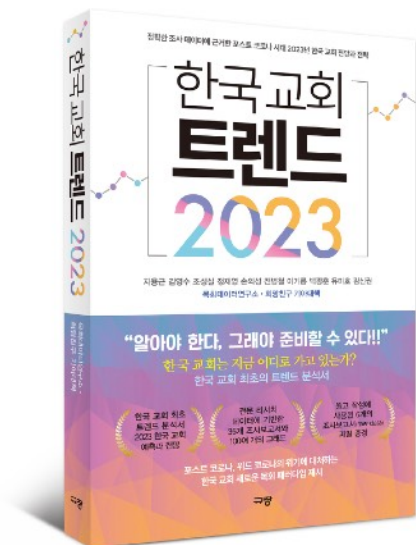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솔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해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 연구소 소식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6개월 간의 긴 작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9월 15일에 첫선을 보입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